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기 위하여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제8주 】

(2부 찬양: 299. 하나님 사랑은)

인도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경배의 찬송 24. 왕 되신 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넓고 따사로운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서리가 내리는 상강 절기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갈무리하며, 월동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 몸에서 잎을 하나씩 떨구어 내고 차디찬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부질없는 것들은 털어 내고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먼 훗날 후손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넘쳐나 평화는 요원해 보이고, 반생태적 풍요 속에 지구촌은 공멸하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의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변화를 일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요일1:9 인도자
▲ 교 독 문 29. 시편 65편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권혁순 장로
2부 응 답 송 반주자
2부 찬 양 273.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함께
▲ 성경봉독 미가 7:18~20 1부:인도자/2부:장병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찬 양	I. 일상	마중물 찬양대
	II. 주님만	청과 찬양대
말 씬	주님과 같이신 분 또 없다	김기석 목사
거듭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405.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니,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실한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새길을 열어 주실 터이니, 신실하신 주님께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지은 죄가 부끄러워 주님의 얼굴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께 죄를 낱알이 고하고, 빛나간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세상의 어둠에 타협하지 않고 빛의 길로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윤성중	서수진	이범석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과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과교회)

